

기본적 귀인오류와 대응편향의 검증에서 태도귀인 패러다임의 방법론적 오류로 인한 문제점: 태도 판단의 편향된 응답과 낮은 확신

김 태 익

박 선 응[†]

고려대학교

본 연구는 기본적 귀인오류와 대응편향의 대표적인 연구방법인 태도귀인 패러다임의 방법론적 오류의 가능성과 이로 인해 이 두 현상의 검증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논의하였다. 태도귀인 패러다임은 글에 대한 글쓴이의 선택권(선택있음 vs. 선택없음)과 글의 방향(찬성 vs. 반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글쓴이의 실제 태도를 판단하게 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특히 선행연구는 선택없음 조건에서도 참여자들이 글의 방향과 글쓴이의 실제 태도를 일치하는 방향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기본적 귀인오류와 대응편향의 중요한 증거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선택없음 조건에서 참여자들은 제시된 정보를 통해 정확한 답변을 내릴 수 없는 응답 선택지를 바탕으로 글쓴이의 실제 태도를 판단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편향된 응답과 낮은 확신이 나타났을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태도귀인 패러다임을 약간 변형하여 두 개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글쓴이가 글을 자유롭게(vs. 지시를 받아) 썼는지의 정보와 찬성(vs. 반대)의 글을 제공한 뒤, 연구 1은 참여자들에게 정확한 태도 판단의 가능 여부와 주제에 대한 글쓴이의 실제 태도를 판단하게 했다. 연구 2는 글에 나타난 태도와 글쓴이의 태도를 각각 판단하게 한 후 판단에 대한 확신을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 제기한 문제점과 과다귀인 경향성을 보여주는 결과가 모두 나타났다. 연구 1에서는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선택없음 조건에서 더 높았고 이렇게 응답한 참여자들은 글에 나타난 태도를 글쓴이에게 귀인하지 않았다. 또한 연구 2에서는 대체로 상황적 제약이 존재할 때 글쓴이의 태도 판단의 확신이 가장 낮았다. 한편 연구 1의 선택없음 조건에서 여전히 절반 이상의 참여자들이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응답했고 이들은 개인성향귀인을 보였다. 또한 선행연구와 동일한 분석을 했을 때 개인성향귀인이 나타났다. 연구 2 역시 상황의 제약이 존재할 때도 개인성향 판단이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개인성향귀인의 경향성이 태도귀인 패러다임의 방법론적 오류에 부분적으로나마 기인했을 가능성과 인간의 과다귀인 경향성 모두를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주요어 : 태도귀인 패러다임, 방법론적 오류, 태도 판단의 편향된 응답, 판단의 확신, 기본적 귀인오류, 대응편향

[†] 교신저자: 박선응,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Tel: 02-3290-2868, E-mail: sunwpark@korea.ac.kr

많은 사회심리학 연구는 사람들이 타인의 행동의 원인을 판단할 때 상황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고 개인 성향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성이 있음을 밝혀왔다(Jones, 1979; Ross, 1977). ‘기본적 귀인오류(fundamental attribution error)’ 또는 ‘대응 편향(correspondence bias)’으로 명명된 이 현상은 Jones와 Harris(1967)의 기념비적인 연구 이후 1970-80년대 사회심리학계의 핵심 주제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으며 “대인지각의 연구에서 보고된 그 어떤 현상에 못지않게 탄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현상”(Quattrone, 1982, p. 376)으로 여겨져 왔다.

기본적 귀인오류와 대응편향의 학문적 그리고 현실적인 함의는 상당히 높다. 우선 사람들이 타인의 행동을 판단할 때 개인성향에 초점을 맞춘다는 발견은 Asch(1951)의 동조실험과 Milgram(1963)의 복종실험 등 인간 행동의 결정요인으로 상황의 영향력을 강조하던 당시 학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었으며, 심리학자나 상담가 등 심리학 전문가들도 이러한 경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불거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Chang, Crethar, Ratts, & Editors, 2010; Ross, 1977). 나아가 이는 대인관계(O’Sullivan, 2012), 미디어 매체와 마케팅(Tal-Or & Papirman, 2007), 사법 판단(Dripps, 2003; Tasilitz, 2006), 피해자 비난(Howard, 1984), 도덕 판단(Lane, 2000), 편견과 고정관념(Nier, Bajaj, McLean, & Schwartz, 2012; Pettigrew, 1979) 등 여러 현실 문제를 설명하는 데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해왔다. 국내에서도 정당방위 판단(성유리, 김종한, Meyersburg, 박광배, 2013), 범죄추세(박순진, 2012), 광고 및 마케팅(박재진, 2011, 2012), 기업의 사회적 책임(권영철, 2011)의 인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본적 귀인오류와 대응편향을 적용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기본적 귀인오류와 대응편향을 검증한 선행 연구의 대표적인 연구 패러다임은 Jones와 Harris(1967)가 고안한 태도귀인 패러다임이다. 태도귀인 패러다임은 특정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그

주제에 대한 글쓴이의 진짜 태도를 판단하게 하는 과제로, 참여자들에게 글쓴이가 글을 자유롭게(vs. 지시를 받아) 썼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뒤 주제에 대해 찬성(vs. 반대)하는 글을 제시하고 주제와 관련된 제시문에 글쓴이가 실제로 어떤 태도를 지닐지를 측정하는 리커트 문항에 응답(1점: 매우 비동의, 7점: 매우 동의)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참여자들은 글의 방향(찬성 vs. 반대)이 글쓴이의 태도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선택있음 조건(글을 자유롭게 쓴 조건) 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선택없음 조건(글을 지시받아 쓴 조건)에서도 비록 경향성이 다소 약하긴 하나 여전히 글의 방향이 글쓴이의 실제 태도를 나타낸다고 판단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기본적 귀인오류와 대응편향의 중요한 근거로 간주되어왔다(Gilbert & Malone, 1995; Jones, 1979).

하지만 몇몇 연구자들은 이러한 개인성향귀인이 태도귀인 패러다임 자체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Devine, 1989; Funder, 1987; Miller, Schmidt, Meyer, & Collela, 1984). 선택있음 조건에서는 글쓴이가 자유롭게 글의 방향을 결정했기 때문에 글의 방향(찬성 vs. 반대)에 따라 글쓴이의 실제 태도를 판단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자연스럽다. 하지만 선택없음 조건의 경우 제공된 정보, 즉 글쓴이가 글을 지시받아 썼다는 정보와 글의 방향만으로는 글쓴이가 실제로 주제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태도귀인의 측정문항이 찬성-반대의 고정된 틀로 구성되었기에 참여자들 역시 이러한 틀에 따라 태도귀인을 하도록 유도되었을 개연성이 높다(Funder, 1987; Miller et al., 1984). 본 연구는 이러한 태도귀인 패러다임의 방법론적 오류로 인해 기본적 귀인오류와 대응편향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한편 기본적 귀인오류와 대응편향의 차이점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원래 기본적 귀인

오류와 대응편향은 개인성향의 과다귀인 현상을 지칭하는 동의어로 사용되었으나(예, Choi & Nisbett, 1998), 최근 이 두 용어는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다(Erickson & Krull, 1999; Krull, 2001). 구체적으로 기본적 귀인오류는 행동의 원인을 판단할 때 개인성향의 영향력을 과다 추정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이는 행동의 원인 즉 대상이 '왜(why)' 그런 행동을 했는가를 파악하는 인과귀인(causal attribution)의 과정이다. 반면 대응편향은 행동을 대상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론하는 경향으로 정의되며, 이는 관찰된 행동을 보고 대상이 '어떠한지(what)'를 파악하는 성향추론(dispositional inference)의 과정이다(Erickson & Krull, 1999; Hamilton, 1998; Hilton, Smilth, & Kim, 1995; Krull, 2001). 이 두 현상의 구분에 관한 선행연구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태도귀인 패러다임의 방법론적 오류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각 현상에 대해 어떠한 함의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적 배경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겠다.

본 연구는 태도귀인 패러다임에서 선택없음 조건의 참여자들이 주어진 정보만으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판단하도록 요구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이러한 방법론적 오류로 인해 기본적 귀인오류와 대응편향의 검증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태도 판단의 편향된 응답과 판단에 대한 낮은 확신이라는 두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경험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이것이 기본적 귀인오류 및 대응편향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태도귀인 패러다임

기본적 귀인오류와 대응편향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 주로 사용해 온 연구방법은 Jones와 Harris(1967)가 고안한 태도귀인 패러다임이다. 이

들의 연구(연구 1)에서, 참여자들은 피델 카스트로의 쿠바에 관해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고 그 주제에 대한 글쓴이의 실제 태도를 예측하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이때 참여자들은 글의 방향에 대한 글쓴이의 선택권과 관련된 두 가지 조건(선택있음 vs. 선택없음) 중 하나에 무선택당되었다. 선택있음 조건의 경우 참여자들은 글쓴이가 스스로 친카스트로 혹은 반카스트로의 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썼다고 안내되었다. 선택없음 조건에서 참여자들은 글쓴이가 친카스트로 혹은 반카스트로의 글을 쓰도록 지시받았다고 안내를 받았다. 이후 참여자들은 카스트로와 쿠바에 대한 10개의 서술문을 보고 이에 대해 글쓴이가 얼마나 동의할 것인지를 7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함으로써, 카스트로와 쿠바에 대한 글쓴이의 실제 태도를 추측하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선택있음 조건은 물론 글쓴이에게 글의 방향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선택없음 조건에서조차 글의 방향이 카스트로와 쿠바에 대한 글쓴이의 실제 태도의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경향성이 동일한 주제(연구 2) 및 차별정책(연구 3)에 관해 다른 글을 자극물로 사용한 추가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Jones와 Harris(1967)는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인간은 타인의 행동의 이유를 판단할 때 상황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고 개인 성향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는 오류를 범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다수의 후속연구는 글의 주제를 다원화하거나(예, 사형제도, 낙태, 마리화나의 합법화 등), 글의 제시 순서를 바꾸거나(Jones, Riggs, & Quattrone, 1979), 같은 글쓴이가 찬성 및 반대의 글을 모두 썼다고 안내하거나(Allison, Mackie, Muller, & Worth, 1993) 글쓴이에 대한 추가정보를 제공(Ajzen, Dalto, & Blyth, 1979)하는 등 다양한 맥락에서 개인성향귀인을 반복검증하였다(Gawronski, 2004; Jones, 1979; Quattrone, 1982).

태도귀인 패러다임의 방법론적 오류와 이에 따른

두 가지 가능한 문제점

비록 태도귀인 패러다임을 이용한 선행연구가 개인성향귀인이라는 공통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적어도 일정부분은 태도귀인 패러다임의 측정방식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태도귀인 패러다임에서 참여자들은 특정 주제를 다룬 글에 대한 글쓴이의 선택권(선택있음 vs. 선택없음)과 글의 방향(찬성 vs. 반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뒤 글쓴이가 해당 주제에 대해 실제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에 대해 판단하도록 안내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글쓴이의 태도를 판단할 때 참여자들이 글쓴이가 주제에 대해 찬성하는가 혹은 반대하는가라는 고정된 틀 안에서 응답을 하도록 유도되었다는 것이다. 예컨대 Choi와 Nisbett(1998)의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John이라는 글쓴이가 사형제도에 관한 글을 자유롭게(vs. 지시를 받아) 썼다는 사실을 안내받은 뒤, 그가 쓴 사형 제도를 찬성(vs. 반대)하는 글을 읽었다. 이후, '사형제도는 잠재적인 범죄를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와 같은 서술문에 John이 실제로 얼마나 동의할 것 같은지에 대해 7점 척도(1점: 완전히 비동의, 7점: 완전히 동의)로 응답하였다.

만약 글쓴이의 태도에 대한 판단의 선택지가 위의 실험에서 주어진 바와 같이 찬성-반대의 틀에 국한되지 않는다면, 선택없음 조건의 참여자가 내릴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답은 '알 수 없다'일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조건에서 글쓴이가 글을 지시받아 썼다는 정보와 글의 방향만으로는 글쓴이가 주제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지니는지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기가 불가능하다. 즉 태도귀인 패러다임은 참여자들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제한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원래의 연구의도와는 달리 참여자들의 응답이 인위적으로 유도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태도귀인 패러다임에서 글쓴이의 실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7점 척도가 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7점 척도의

중앙값인 4점의 응답이 찬성-반대로 제한된 선택지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태도귀인 측정문항이 글쓴이가 실제로 주제에 대해 얼마나 동의할 것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4점 응답의 정확한 의미는 '참여자인 나는 주제에 대해 글쓴이가 중립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한다'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지만 글쓴이가 글을 지시받아 썼다는 정보와 글의 방향에 대한 정보만으로는 글쓴이가 주제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

Funder(1987), Miller와 Rorer(1982), Miller와 동료들(1984) 등 여러 연구자들은 이러한 태도귀인 패러다임의 방법론적인 오류로 인해 참여자들의 태도귀인에서 편향된 응답이 나타났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Funder(1987)는 태도귀인 패러다임이 참여자들에게 글쓴이의 실제 태도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면서도 그 판단을 내리기에 적합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에, 참여자들이 연구자가 의도한 것 이외의 다른 정보를 판단근거로 사용할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특히 실험상황에서 연구자가 태도 판단과 관련하여 글을 제공했다는 사실 자체가 참여자들에게는 글을 글쓴이의 진짜 태도 판단에 사용하라는 암묵적인 정보로 이해될 가능성이 높으며, 선택없음 조건에서 글의 방향과 태도귀인이 동일한 방향으로 나타난 것은 이로 인해 참여자들이 글의 방향을 바탕으로 글쓴이의 태도를 판단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Miller와 동료들(1984) 역시 Funder(1987)와 유사한 비판을 제기하였으며,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참여자들에게 글의 방향 및 글쓴이의 선택권에 대한 정보가 글쓴이의 실제 태도를 판단하는 데 유용한지의 여부에 응답하도록 했다. 그 결과 선택있음 조건에서는 약 90%의 참여자들이 주어진 정보가 유용했다고 응답한 반면, 선택없음 조건에서는 약 70%의 참여자들이 주어진 정보가 유용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의 태도귀인은 선행연구와 일관적인 방향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기본적 귀인 오류와 대응편향이 부분적으로나마 태도귀인 패러다임의 측정방식 자체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을 지지한다.

만약 개인성향귀인이 이러한 방법론적인 문제에서 기인했다면 참여자들이 글쓴이의 실제 태도를 추론함에 있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판단을 내렸는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Devine, 1989). 만약 참여자들이 적절한 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채 글쓴이의 실제 태도를 판단한다면 이러한 판단은 낮은 확신을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만약 선택없음 조건에서 태도판단에 대한 낮은 확신이 나타난다면 이는 참여자들이 글쓴이의 실제 태도를 판단할 때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적절한 판단을 하기 힘들다는 사실, 즉 태도귀인 패러다임의 방법론에 오류가 존재할 가능성을 의미할 수 있다. 무엇보다 기본적 귀인 오류와 대응편향의 전제가 태도귀인에 대한 지각자의 확신어린 평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Jones & Davis, 1965), 만약 선택없음 조건에서 태도 판단에 대한 낮은 확신이 나타난다면 이는 그 동안 기본적 귀인오류와 대응편향을 규명해 온 선행연구의 이론적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결과일 수 있다. 태도귀인 패러다임의 방법론적 오류가 낮은 태도 판단에 대한 확신으로 연결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선행연구는 글의 특징(Schneider & Miller, 1975)이나 귀인 복잡성 (Devine, 1989)과 같은 이러한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변인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었을 뿐, 이러한 가능성을 직접적인 검증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태도 판단에 대한 참여자들의 확신을 측정함으로써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기본적 귀인오류와 대응편향의 구분

기본적 귀인오류와 대응편향은 원래 행동의

원인을 개인성향으로 귀인하는 경향성을 가리키는 동의어로 쓰였으나 최근에는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두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인다. 구체적으로, 기본적 귀인오류는 행동의 원인을 판단함에 있어 개인성향의 역할을 과다추정하고 상황의 역할을 과소추정하는 현상으로 정의되며, 대응편향은 타인의 행동을 대상의 특성과 대응시켜 추론하는 경향을 의미한다(Krull, 2001). 이 두 현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행동의 원인에 대한 고려의 유무로, 기본적 귀인오류는 타인의 행동의 원인에 대한 인지적인 고려를 포함하는 인과귀인 과정인 반면, 대응편향은 이러한 고려 과정 없이 행동의 관찰이 직접적으로 개인성향에 대한 추론으로 이어지는 성향추론 과정이다. 초기의 귀인 이론은 이 두 과정을 판단과정에서 전후로 나타나는 하나의 심리적 현상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 Jones와 Davis(1965)는 대응추론이론에서 행위자의 행동을 지각자가 보았을 때 그 행동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선 판단(인과귀인)하고 이후 행위자의 능력, 운, 상황에 대한 지식 등을 고려하여 행위자의 특성(성향추론)을 추론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Quattrone (1982)은 성향추론이 인과귀인에 앞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후의 많은 연구는 기본적 귀인오류와 대응편향이 별개의 심리적 현상임을 밝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Erickson & Krull, 1999; Hamilton, 1988; Krull, 2001).

선행연구는 기본적 귀인오류와 대응편향이 발현조건, 인지적 자동성, 심리적 메커니즘의 세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Erickson & Krull, 1999). 이 두 현상의 첫 번째 차이점은 서로 다른 상황적 조건에서 나타난다는 것으로, 이 주장은 Hamilton(1988, 1998)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다. 그는 대상과 관련된 사전 정보가 쉽게 가용할 때는 인지정보처리과정이 초기단계에서 종결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후기단계까지 이루어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성향추론은 행위자의 행동이 익숙하거나 사전 기대와 일치하는 상황에서 나타날 것이나 인과

귀인은 낮은 상황 혹은 사전 기대와 배치되는 상황에서 나타날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러한 Hamilton의 주장은 이후 기대에 부합하지 않거나 이해하기 난해한 상황에서 인과귀인이 나타난다는 경험적인 근거가 제시되면서 지지되었다 (Clary & Tesser, 1983; Hastie, 1984).

두 번째 차이점은 정보처리의 인지적 자동성이다. 앞서 Hamilton의 주장처럼 성향추론이 대상의 특성에 대한 즉각적인 판단과정인 반면 인과귀인에는 행동의 원인에 대한 고려과정이 포함된다면 이 둘은 인지적 자동성의 측면에서 차이가 날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Smith와 Miller(1983)는 성향추론과 인과귀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직접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이러한 가설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이들은 참여자들에게 특정 사건에 대한 문장을 보여주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개인인과판단(사건의 개인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판단), 상황인과판단(사건의 상황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판단), 성향추론(문장에 제시된 인물의 성향 판단), 통제 문항(문장에 제시된 인물의 성별 판단) 등 다양한 종류의 판단을 하게하고 각각의 판단에 대한 반응시간을 측정하였다.¹⁾ 이 때 통제 문항인 성별 판단을 가장 자동적으로 빠르게 일어나는 처리과정으로 가정하고 각 판단과 성별 판단의 반응시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성별 판단(2.14초)과 성향추론(2.48초)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성별 판단과 개인인과판단(3.42초) 그리고 상황인과판단(3.80초) 간에는 유의미한 반응시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1) 컴퓨터 화면에 예를 들어 'Ted가 친구로부터 빌린 비싼 카메라를 고장 냈다.'라는 문장을 제시한 후 '그 사람(그 상황)과 관련된 무언가가 문장에 기술된 사건을 일으켰습니까?(개인/상황인과판단)'라는 질문이 제시되면 참여자들은 예(vs. 아니오)에 해당하는 키를 눌러 응답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성향추론의 경우 문장 속 행위자의 특성을 기술하는 형용사(위의 예시의 경우 '부주의한'이다)를 제시하고 '이 형용사가 문장에 제시된 사람을 나타냅니까?'라는 질문이 제시되었다.

Macrae와 Shepherd(1991)의 연구에서도 재검증되었으며, 이는 성향추론이 인과귀인보다 훨씬 자동적인 인지과정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 차이점은 심리적 메커니즘의 문제로 Hilton, Smith와 Kim(1995)은 이 두 현상에 서로 다른 심리적 메커니즘이 개입된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참여자들이 성향추론을 할 때와 인과귀인을 할 때 서로 다른 판단방법, 즉 성향추론에는 존 스투어트 밀이 제시한 일치법에 따른 판단방법을 적용하나 인과귀인은 밀의 차이법에 따른 판단방법을 적용한다는 점을 밝혔다. 이렇듯 꽤나 많은 후속연구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기본적 귀인오류와 대응편향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이론적, 경험적 근거들을 제시함으로써 이 둘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심리적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태도귀인 패러다임이 기본적 귀인오류와 대응편향을 규명하는 데 대표적으로 사용되어온 연구 패러다임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제시한 두 가지 문제점이 기본적 귀인오류와 대응편향과 관련하여 어떠한 함의를 지닐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기한 첫 번째 쟁점인 태도 판단의 편향된 응답 가능성은 기본적 귀인오류와 관련하여 함의를 지닐 수 있다. 기본적 귀인오류는 개인 성향과 상황 중 행동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고려하여 이를 개인성향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상황의 영향력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개인성향귀인을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가 태도귀인 패러다임의 방법론적 오류에서 부분적으로나마 기인했을 수 있다는 첫 번째 쟁점은 기본적 귀인오류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쟁점은 상황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여부에 관계없이 행동을 개인의 성향에 대응하여 추론하는 현상인 대응편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 쟁점인 태도 판단에 대한 낮은 확신의 경우 기본적 귀인오류와 대응편향 모두에 대해 함의를 가진다. 앞서 밝혔듯, 태도귀인에 대한 확신어린

평가가 기본적 귀인오류와 대응편향의 전제인 점을 고려할 때(Jones & Davis, 1965), 선택없음 상황에서 태도 판단에 대한 낮은 확신이 나타난다면 이는 두 현상의 이론적인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결과일 수 있다.

연구개요

본 연구는 태도귀인 패러다임의 방법론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이로 인해 태도 판단에 대한 편향된 응답과 낮은 확신이라는 두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이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두 개의 연구를 실시하였다. 두 연구 모두 태도귀인 패러다임을 적용한 가운데 약간의 변화를 주었다. 두 연구 모두 참여자들은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이 다른 종류의 커뮤니케이션보다 더 낫다는 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글을 읽었다. 선택있음 조건에서 참여자들은 글쓴이가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글의 방향을 자유롭게 결정했다고 안내받은 반면, 선택없음 조건의 경우 글을 찬성(vs. 반대)의 방향으로 쓰도록 지시받았다고 안내되었다. 연구 1에서는 이후 태도귀인을 위해 제공된 정보의 적절성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글쓴이의 태도귀인을 측정하기 전 '글쓴이의 실제 태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았다. 이를 통해 글에 대한 글쓴이의 선택권에 따라 참여자들이 글쓴이의 실제 태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 태도귀인의 양상이 달라지는지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연구 2에서는 태도 판단에 대한 참여자들의 확신에 초점을 맞추어 글에 나타난 태도와 글쓴이의 태도를 구분하여 판단하게 하였으며, 각 판단에 대한 확신의 정도도 함께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글에 나타난 태도와 글쓴이의 태도를 구분하여 인식하는지, 또한 글쓴이의 선택권에 따라 글쓴이의 태도 판단에 대한 확신의

정도가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가 진행된 각 대학교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고 진행되었다.

연구 1

연구 1의 목적은 개인성향귀인을 보고한 선행 연구의 결과가 태도귀인 패러다임의 방법론적 오류로부터 부분적으로나마 기인했을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태도귀인 패러다임을 비판한 선행연구는 선택없음 조건에서 참여자들은 정확한 판단이 제한되는 맥락에서 글쓴이의 실제 태도를 판단하도록 요구받았으며, 이로 인해 참여자들의 응답이 편향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Funder, 1987; Miller et al., 1984). 만약 이러한 가능성이 사실이라면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글쓴이의 실제 태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인식이 선택없음 조건에서 더 높게 나타날 것이며,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는 참여자들은 상대적으로 개인성향귀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자들은 예측하였다.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재현하되 태도귀인을 측정하기 전 제시된 정보가 글쓴이의 실제 태도를 판단하는데 적절한지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을 측정하였다. 연구 1의 가설은 세 가지이다. 첫째, 기존 연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태도귀인 분석을 실시했을 때는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 즉 글쓴이의 실제 태도에 대한 판단이 글의 방향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것이다. 둘째, 선택있음 조건에 비해 선택없음 조건에서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의 빈도가 높을 것이다. 셋째, 글쓴이의 실제 태도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인식하는 참여자들은 글의 내용을 글쓴이의 실제 태도로 귀인할 것이나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는 참여자들은 글의 내용을 글쓴이의 실제 태도로 귀인하지 않을 것이다.

방 법

연구 참여자

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대학교에서 심리학 개론 수업을 수강중인 학부 대학생 122명(여성 85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참여자들에게는 수업 학점이 보상으로 지급되었다.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19.22세($SD = 1.49$)였다. 연구의 마지막에 참여자들이 연구에 성실히 참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구와 관련된 간단한 문항 두 개를 추가했으며, 이 문항에 틀리게 응답한 24명을 제외한 총 98명의 데이터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절차

연구 참여자들이 실험실에 도착하면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실시한 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연구 내용은 특별한 커버스토리 없이 태도 판단에 관한 연구라고 소개되었다. 참여자들은 글에 대한 글쓴이의 선택권(선택있음 vs. 선택없음)과 글의 방향(찬성 vs. 반대)에 따른 총 네 개의 조건 중 하나에 무선택당되었다. 글의 주제에 대한 참여자의 평소 태도가 태도귀인에 영향을 끼친다는 Reeder, Fletcher와 Furman(1989)의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선호 경향성이 뚜렷하지 않을 것이라 여겨지는 주제인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의 유용성에 관한 내용을 선택하였다. 제시된 지시문과 글을 읽은 이후 참여자들은 연구와 관련된 문항과 인구학적 정보에 관련된 문항에 응답하였다. 각 측정문항의 원문은 문항이 제시된 각 지면 아래 각주에 제시되었다.

실험적 조작 및 측정 도구

자극물의 구성

Jones와 Harris(1967)는 태도귀인 패러다임에서

세련되지도 거칠지도 않으며,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친숙한 주장을 담고 있으며, 약간의 문법적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 200자 분량의 C+수준의 글을 자극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토플(TOEFL)의 지시문을 바탕으로 Jones와 Harris(1967)가 제시한 기준을 참고하여 연구자들이 직접 자극물을 구성하였다. 토플시험이 영어 비 원어민들을 대상으로 영어 원어민 국가의 학부수업 수준의 영어실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생에게 사용하기에 합리적인 수준일 것이라 판단하였다. 글의 분량은 약 250자 수준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찬성과 반대의 조건별 자극물의 원문은 부록에 제시되었다.

실험적 조작

선택있음 조건에 할당된 참여자들은 글쓴이가 '이메일이나 전화와 같은 다른 종류의 매체보다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이 더 낫다는 입장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짧은 글을 쓰시오.'라는 지시문을 보고 글을 썼다고 안내되었다. 선택없음 조건에 할당된 참여자들의 경우 글쓴이가 '이메일이나 전화와 같은 다른 종류의 매체보다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이 더 낫다는 입장에 대해 당신의 실제 태도와 관계없이 찬성하는(vs. 반대하는) 짧은 글을 쓰시오.'라는 지시문을 보았다고 안내되었다. 찬성 조건의 참여자들은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지지하는 글을 읽은 반면, 반대 조건의 참여자들은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반대하는 글을 읽었다. 각 지시문의 원문은 부록에 제시되었다.

정확한 태도귀인의 가능성 인식

주제에 대한 글쓴이의 실제 태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당신은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글쓴이의 실제 태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응답은 '예' 혹은 '아니오'의 명목 측정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태도귀인

면대면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하여 글쓴이의 태도에 대한 판단을 측정하기 위해 태도귀인 문항이 제시되었으며, 앞서 제시된 태도귀인의 정확성에 대한 인식 문항과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응답(예 또는 아니오)에 따라 문항이 약간 조정되어 제시되었다. 앞의 문항에 '예'라고 응답한 참여자에게는 '당신은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글쓴이의 실제 태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이메일이나 전화와 같은 다른 종류의 매체보다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이 더 낫다는 입장에 글쓴이가 실제로 얼마나 동의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³⁾'라는 문구가 제시되었다. 한편, 앞의 문항에 '아니오'라고 응답한 참여자에게는 '당신은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글쓴이의 실제 태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고 응답하셨습니다. 하지만 글쓴이의 실제 태도를 판단해야만 한다면, 이메일이나 전화와 같은 다른 종류의 매체보다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이 더 낫다는 입장에 글쓴이가 실제로 얼마나 동의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⁴⁾'라는 문구가 제시되었다. 참여자들은 각 문항에 7점 척도(1점: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7점: 매우 동의할 것이다)로 응답하였다.

주의 점점

참여자들이 연구에 성실하게 참여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응답의 마지막 부분에 글의 주제

- 2) Do you think you can correctly judge the author's actual attitude towards face-to-face communication?
- 3) You have indicated that you could correctly judge the author's actual attitude towards face-to-face communication. How much do you think the author actually agrees with the idea that face-to-face communication is better than other types of communication, such as email or phone calls?
- 4) You have indicated that you could correctly judge the author's actual attitude towards face-to-face communication. How much do you think the author actually agrees with the idea that face-to-face communication is better than other types of communication, such as email or phone calls?

와 글쓴이의 선택권에 관한 문항을 제시하였다. 응답은 각 문항에 대해 제시된 선택지 중 정답을 찾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첫 번째 문항은 '글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다?' 라는 질문과 함께 '컴퓨터 기술, 커뮤니케이션 도구, 효율적인 공부방법, 돈의 절약의 네 가지 선택지가 제시되었다. 두 번째 문항은 '어떤 것이 사실입니까?'라는 질문과 함께 '글쓴이가 특정한 방향으로 글을 쓰도록 지시받았다'와 '글쓴이가 글의 방향을 자유롭게 결정했다'의 두 가지 선택지가 제시되었다. 앞서 밝혔듯, 두 질문 중 하나라도 틀리게 응답한 참여자의 데이터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결 과

글쓴이의 선택권과 글의 방향에 따른 태도귀인

글쓴이의 선택권과 글의 방향에 따라 태도귀인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2(글쓴이의 선택권: 선택있음 vs. 선택없음) × 2(찬성 vs. 반대)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태도귀인에 대한 글쓴이의 선택권과 글의 방향의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F(1, 93) = 8.47, p = .005, \eta_p^2 = .083$. 그림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⁵⁾, 단순효과 분석 결과 선택있음 조건에서는 참여자들이 글이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에 찬성할 때는 글쓴이 역시 보다 주제에 찬성하는 것($M = 5.44, SD = 1.04$)으로, 반대할 때는 글쓴이 역시 보다 주제에 반대하는 것($M = 3.00, SD = 1.63$)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F(1, 93) = 40.22, p < .001, \eta_p^2 = .302$. 한편 선택없음 조건 역시 판단의 강도가 선택있음 조건에 비해 다소 중립적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글이 주제에 대해 찬성하는 경우에는 글쓴이도 보다 주

5) 본 연구에서 보고된 그림 1, 2, 3, 4의 오차 막대(error bar)는 ±1 표준오차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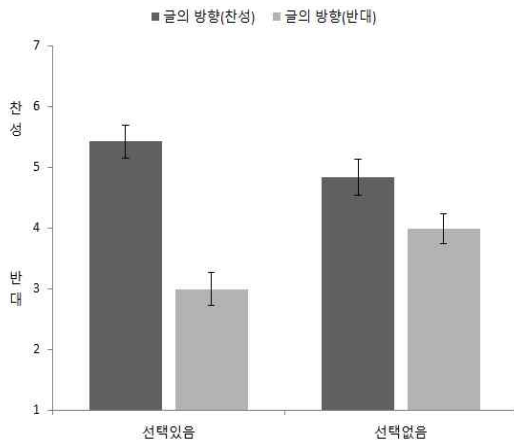


그림 1. 글쓴이의 선택권과 글의 방향에 따른 태도귀인의 차이

제에 찬성하는 것($M = 4.85, SD = 0.93$)으로, 반대하는 경우에는 글쓴이도 보다 주제에 반대하는 것($M = 4.00, SD = 1.46$)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였다, $T(1, 93) = 4.84, p = .030, \eta_p^2 = .050$.⁶⁾ 이는 가설 1과 일치하는 결과로, 선행연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을 실시했을 때 참여자들은 글쓴이의 실제 태도에 대해 개인성향구

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쓴이의 선택권에 따른 정확한 태도 판단의 가능성 인식

글쓴이의 선택권에 따라 주제에 대한 글쓴이의 실제 태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독립성 검정을 실시하였다(표 1). 분석 결과, 글쓴이의 선택권에 따른 태도 판단의 정확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chi^2(1, N = 98) = 18.37, p < .001$. 즉, 두 번째 가설대로 선택없음 조건에서 글쓴이의 실제 태도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참여자의 비율이 선택있음 조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참여자의 총 응답 수를 살펴보았을 때, 선택없음 조건에서도 정확한 태도 판단이 가능하다고 인식한 참여자의 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식한 참여자의 수보다 여전히 많았다.

정확한 태도 판단의 가능성 인식과 글의 방향에 따

표 1. 글쓴이의 선택권 여부에 따른 정확한 태도 판단 가능성의 인식 차이

조건	정확한 판단 가능성 인식			χ^2
	가능	불가능	전체	
선택있음	45 (93.7)	3 (6.3)	48 (100.0)	18.37**
선택없음	28 (56.0)	22 (44.0)	50 (100.0)	

주. 각 집단별 응답 비율이 괄호 안에 표기되었다.

** $p < .01$

6) 글의 방향을 중심으로 글쓴이의 선택권에 따른 태도 귀인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순효과 분석결과, 글이 반대일 경우 선택있음 조건과 선택없음 조건의 태도귀인의 차이가 유의하였으며, 참여자들은 선택있음 조건($M = 3.00, SD = 1.63$)에서 선택없음 조건($M = 4.00, SD$

$= 1.46$)에 비해 글쓴이가 실제로 주제에 더욱 반대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T(1, 93) = 7.60, p = .007, \eta_p^2 = .076$. 글이 찬성일 경우에는 선택있음 조건과 선택없음 조건의 태도귀인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T(1, 93) = 2.07, p = .153, \eta_p^2 = .022$.

른 태도귀인

는 의

정확한 태도 판단의 가능성 인식과 글의 방향에 따라 태도귀인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 보기 위해, 2(가능성 인식: 가능 vs. 불가능) × 2(글의 방향: 찬성 vs. 반대) 이원분산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F(1, 93) = 7.92, p = .006, \eta_p^2 = .078$.⁷⁾ 단순효과 분석 결과, 정확한 판단에 대한 인식에 따라 태도귀인의 양상에 차이가 나타났다. 그림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인식한 참여자들은 글이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에 찬성할 때는 글쓴이 역시 주제에 보다 찬성하는 것($M = 5.31, SD = 1.02$)으로, 반대할 때는 글쓴이 역시 주제에 보다 반대하는 것($M = 3.22, SD = 1.73$)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였다, $F(1, 93) = 44.66, p < .001, \eta_p^2 = .324$. 반면 태도귀인의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한 참여자들에게서는 글의 방향이 태도귀인과 관계가 없었다, $F(1, 93) = 0.22, p = .644, \eta_p^2 = .002$. 이는 세 번째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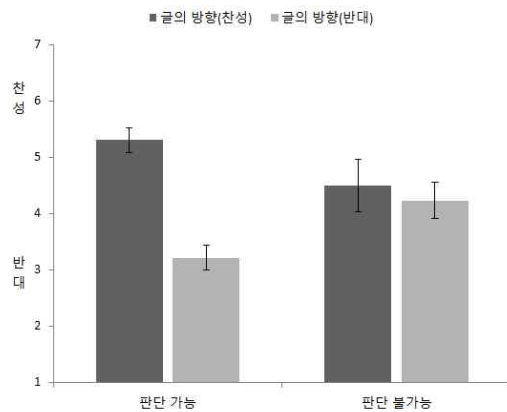


그림 2. 정확한 태도 판단 가능성 인식과 글의 방향에 따른 태도귀인의 차이

연구 1은 선행연구에서 일관적으로 보고해 온 개인성향귀인이 태도귀인 패러다임의 방법론적 오류에서 부분적으로나마 기인했을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는 선택없음 조건에서 정확한 판단이 제한되는 맥락에서 참여자들이 글쓴이의 실제 태도를 판단하도록 요구받았으며, 이로 인해 참여자들의 응답에 편향이 나타났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Funder, 1987; Miller et al., 1984). 이러한 가능성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 1에서는 태도귀인 패러다임을 적용하여 선행연구를 재현하되 태도귀인을 측정하기 전 글쓴이의 실제 태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고 그러한 판단에 따라 태도귀인 양상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첫 번째 가설대로 선행연구와 동일한 분석을 실시했을 때 태도귀인 양상은 기본적 귀인오류 및 대응편향을 보고한 선행연구와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 즉 선택없음 조건에서 태도귀인이 보다 중립적인 경향을 보였지만 두 조건 모두에서 참여자들은 글이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에 찬성하면 글쓴이도 이에 대해 보다 찬성할 것이라, 반대하면 글쓴이 역시 보다 반대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하지만 연구 1의 결과는 이러한 개인성향귀인이 부분적으로나마 태도귀인 패러다임의 측정방식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예컨대 두 번째 가설대로 글쓴이의 실제 태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참여자의 비율이 선택없음 조건(3명, 6.3%)보다 선택없음 조건(22명, 44.0%)에서 보다 높게 나타났다. 나아가 세 번째 가설대로 글쓴이의 실제 태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집단에서는 글의 방향이 태도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밝힌 기본적 귀인오류가 부분적으로나마 태도귀인 패러다임의 측정방식의 문제에 기인했을 가능성을 지지한다. 앞서 밝혔

7) 조건별 N수는 찬성/판단가능 조건이 35, 찬성/판단불가능 조건이 8, 반대/판단가능 조건이 37, 반대/판단불가능 조건이 17로 집단별 차이가 존재했다.

듯, 이러한 연구 1의 결과는 대응편향을 약화시키는 근거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다만 일부의 결과는 오히려 기본적 귀인오류를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앞서 밝혔듯, 선행연구와 동일한 분석을 했을 때 선택없음 조건에서도 개인성향귀인이 나타났다. 나아가 선택없음 조건에서도 여전히 절반 이상(28명, 56.0%)의 참여자들이 글쓴이의 실제 태도를 정확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응답했으며, 그렇게 응답한 참여자들은 개인성향귀인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태도귀인 패러다임의 방법론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기본적으로 참여자들이 타인의 행동의 원인을 판단할 때 상황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연구 1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우선 참여자들에게 본 연구는 별다른 커버스토리 없이 단순히 태도 판단에 관한 연구라고 소개되었다. 따라서 참여자들이 연구과정에서 연구의 의도를 예측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연구 1에서는 자극물로 사용된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글의 수준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이 고려되지 않았다. 비록 글을 지시받아서 썼다고 할지라도 글의 수준이 높고 설득력이 있다면 글쓴이의 평소 태도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지각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글의 수준은 특히 선택없음 조건에서 글쓴이의 실제 태도에 대한 제시적인 증거로서 기능함으로써 태도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간주될 수 있다(Schneider & Miller, 1975).

연구 2

연구 2의 목적은 태도귀인 패러다임의 방법론적 오류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두 번째 문제점인 선택없음 조건에서 태도 판단에 대한 참여자들의 낮은 확신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

는 것이다. 선택없음 조건의 경우 참여자들에게 주어진 정보, 즉 글쓴이가 글을 지시받아 썼다는 정보와 글의 방향만으로는 주제에 대해 글쓴이가 실제로 어떤 태도를 지니는지를 정확히 판단하기가 불가능하다. 특히 적절한 정보를 받을 수 없는 판단은 그 판단에 대한 확신을 떨어뜨릴 개연성이 높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만약 위에서 제기한 가능성이 사실이라면 저자들은 선택없음 조건에서 참여자들의 판단의 확신이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특히 기본적 귀인오류와 대응편향이 태도 판단에 대한 확신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Jones & Davis, 1965), 이러한 낮은 확신이 나타난다면 이는 기본적 귀인오류와 대응편향의 이론적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일 수 있다.

연구 2는 태도 판단에 대한 확신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글에 나타난 태도의 경우 선택있음 조건과 선택없음 조건 모두에서 명확한 판단이 가능하나 글쓴이의 태도의 경우는 선택없음 조건에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참여자들에게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글에 나타난 태도와 글쓴이의 실제 태도를 각각 판단하게 하고 각 판단을 얼마나 확신하는지를 응답하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 1에서 한계로 제시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연구에 커버스토리를 적용하여 본 연구의 진짜 의도를 숨긴 채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글의 수준이 글쓴이의 실제 태도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고려하여(Gawronski, 2003; Schneider & Miller, 1975), 찬성과 반대 각 글에 대한 지각된 수준을 측정하여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만약 두 글의 지각된 수준에 차이가 나타난다면 이는 태도판단이 연구자들의 의도와는 다른 정보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연구 2의 가설은 두 가지이다. 첫째, 글에 나타난 태도에 대한 판단은 글쓴이의 선택권과 관계없이 글의 방향대로 나타날 것이나 글쓴이의 태도에 대한 판단은 선택없음 조건에서 보다 중립적인

양상을 보일 것이다. 둘째, 글에 나타난 태도에 대한 판단의 확신은 조건에 따른 차이가 없을 것이나 글쓴이의 태도에 대한 판단의 확신은 선택있음 조건보다 선택없음 조건에서 낮게 나타날 것이다.

관한 문항, 글의 수준에 관한 문항, 인구학적 정보 등을 묻는 문항에 응답하였다. 실험이 종료된 이후 연구의 실제 목적에 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방 법

연구 참여자

미국 중서부에 위치한 대학교에서 심리학 개론 수업을 수강중인 학부 대학생 114명(여성 71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20.44세($SD = 2.66$)이었다. 참여자들에게는 수업 학점이 보상으로 지급되었다. 응답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연구에 성실히 참여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와 관련된 간단한 문항 두 개를 추가했으며, 이 문항에 틀리게 응답한 16명을 제외한 총 98명의 데이터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절차

연구 참여자들이 실험실에 도착하면 연구목적과 실험절차 등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실시한 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다만, 연구의 본 목적을 알고 실험에 참여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요구특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업시간에 쓴 글의 평가에 관한 연구라고 목적이 소개되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같은 글을 서로 다른 평가자가 평가했을 때 평가점수가 유사한지에 관한 연구로 소개되었으며, 대학 글쓰기 수업의 네 개의 다른 부문에서 제공한 네 개의 글이 있다고 안내되었다. 이 과정에서 실험자는 글이 네 개의 서로 다른 부문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글에 관해 글쓴이에게 주어진 지시문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제시된 글을 읽은 이후 참여자들은 태도의 판단에

실험 및 측정 도구

실험적 조작

참여자들은 글에 대한 글쓴이의 선택권(선택있음 vs. 선택없음)과 글의 방향에 따른(찬성 vs. 반대) 총 네 개의 조건 중 하나에 무선택당되었으며, 연구 1과 동일한 글이 자극물로 사용되었다. 선택있음 조건의 참여자들은 글쓴이가 '이메일이나 전화와 같은 다른 종류의 매체보다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이 더 낫다는 입장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짧은 글을 쓰시오. 중요한 것은 당신의 글쓰기 실력이 주제에 대한 당신의 태도가 아닙니다.'라는 지시문을 보고 글을 썼다고 안내되었다. 선택없음 조건의 참여자들의 경우 글쓴이가 '이메일이나 전화와 같은 다른 종류의 매체보다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이 더 낫다는 입장에 찬성하는(vs. 반대하는) 짧은 글을 쓰시오. 중요한 것은 당신의 글쓰기 실력이 주제에 대한 당신의 태도가 아닙니다.'라는 지시문을 보았다고 안내되었다. 찬성 조건의 참여자들은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지지하는 글을 읽은 반면, 반대 조건의 참여자들은 이를 반대하는 글을 읽었다. 각 측정문항의 원문은 문항이 제시된 각 지면 아래 각주에 제시되었다.

태도 판단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에 관해 글에 나타난 태도와 글쓴이의 태도에 대한 참여자들의 판단을 각각 측정하였다. 글에 나타난 태도의 판단을 측정하기 위해 '이메일이나 전화와 같은 다른 종류의 매체보다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이 더 낫다는 입장에 이 글이 얼마나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이 제시되었다. 이후, 글쓴이의 태도에 대한 판단을 측정하기 위해

‘이메일이나 전화와 같은 다른 종류의 매체보다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이 더 낫다는 입장에 대해 글쓴이가 얼마나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이 제시되었다. 참여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7점 척도(1점: 매우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7점: 매우 동의할 것이다)로 응답하였다.

태도 판단에 대한 확신

글에 나타난 태도와 글쓴이의 태도의 판단에 대한 확신을 측정하기 위해, 글에 나타난 태도와 글쓴이의 태도 판단 문항 직후에 ‘이전 문항과 관련한 당신의 응답에 대해 얼마나 확신하십니까?’¹⁰⁾라는 문항이 제시되었다. 참여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7점 척도(1점: 전혀 확신하지 않는다, 7점: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로 응답하였다.

지각된 글의 수준

지각된 글의 수준이 태도에 대한 판단 및 이에 대한 확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여 (Gawronski, 2003; Schneider & Miller, 1975), 참여자들에게 글의 수준을 설득력, 구조, 문법, 전반적인 수준의 네 가지 기준에 따라 7점 척도(1점: 매우 나쁜, 7점: 매우 좋은)로 응답하게 하였다.¹¹⁾ 이 네 가지 기준을 평균 내어 지각된 글의 수준을 측정하였다($\alpha = .77$).

주의 집점

참여자들이 연구에 성실하게 참여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 1과 동일한 방식으로 주의

8) How much do you think the essay agrees with the idea that face-to-face communication is better than other types of communication, such as email or phone calls?

9) How much do you think the author agrees with the idea that face-to-face communication is better than other types of communication, such as email or phone calls?

10) How confident are you about your answer to the previous question?

11) 4문항: How persuasive is the argument of the essay? How well-structured is the essay? How grammatically correct is the essay? Overall, how good is the essay?

점점이 이루어졌으며 둘 중 하나라도 틀리게 응답한 참여자의 데이터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결 과

지각된 글의 수준

찬성과 반대 글의 수준에 대한 참여자들의 지각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독립 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찬성 글($M = 4.14$, $SD = 0.93$)과 반대 글($M = 3.83$, $SD = 1.00$)의 지각된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96) = 1.57$, $p = .119$. 이는 글의 방향에 따른 태도 판단의 차이가 두 글의 수준에 대한 참여자들의 지각에 기인한 것은 아님을 나타낸다.

조건에 따른 글에 나타난 내용과 글쓴이의 태도 판단

각 조건에 따라 태도 판단의 차이가 나타나 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2(글쓴이의 선택권: 선택 있음 vs. 선택없음) × 2(글의 방향: 찬성 vs. 반대) × 2(평가대상: 글 vs. 글쓴이) 혼합모형분산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유의한 삼원상호작용이 발견되었다, $F(1, 94) = 8.97$, $p = .004$, $\eta_p^2 = .087$. 조건에 따른 태도 판단의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글에 나타난 태도와 글쓴이의 태도 판단 각각에 대해 2(글쓴이의 선택권) × 2(글의 방향)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3(왼쪽)에서 보여지듯, 면대면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해 글에 나타난 태도에 대한 판단의 경우 글쓴이의 선택권과 글의 방향에 따른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았다, $F(1, 94) = 0.16$, $p = .693$, $\eta_p^2 = .002$. 다만 글의 방향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하였다, $F(1, 94) = 162.89$, $p < .001$, $\eta_p^2 = .634$. 즉,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찬성하는 글을 읽은 참여자들은 글에 나타난 내용을 주제에 보다 찬성하는 것($M = 6.20$, $SD = 1.01$)으로,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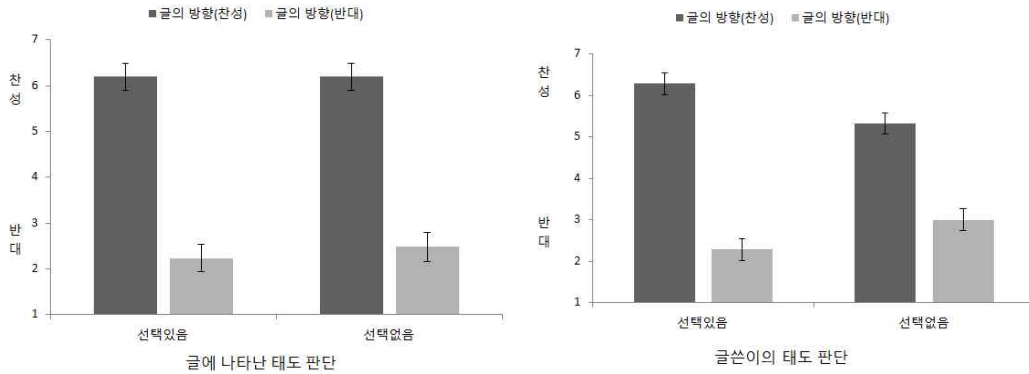


그림 3. 글쓴이의 선택권, 글의 방향, 평가대상에 따른 태도 판단

대하는 글을 읽은 참여자들은 글에 나타난 내용을 보다 주제에 반대하는 것($M = 2.35, SD = 1.84$)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였다.

글쓴이의 태도 판단에 대한 글쓴이의 선택권과 글의 방향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F(1, 94) = 10.44, p = .002, \eta_p^2 = .100$. 그림 3(오른쪽)에 제시되어 있듯이 참여자들은 선택없음 조건에서 글쓴이의 실제 태도를 보다 중립적으로 판단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단순효과 분석결과, 선택있음과 선택없음 조건 모두에서 글의 방향의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선택있음 조건에서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찬성하는 글을 읽은 참여자들은 글쓴이가 실제로도 주제에 대해 보다 찬성할 것($M = 6.28, SD = 0.89$)으로, 반대하는 글을 읽은 참여자들은 글쓴이가 주제에 대해 보다 반대할 것($M = 2.28, SD = 1.37$)으로 판단하였다, $F(1, 94) = 120.89, p < .001, \eta_p^2 = .563$. 선택없음 조건에서도 주제에 찬성하는 글을 읽은 참여자들은 글쓴이가 주제에 대해 보다 찬성할 것($M = 5.32, SD = 1.03$)이라, 그렇지 않은 참여자들은 글쓴이가 주제에 보다 반대할 것($M = 3.00, SD = 1.73$)이라 응답한 경향은 여전히 유의하였다, $F(1, 94) = 38.97, p < .001, \eta_p^2 = .293$.¹²⁾

12) 글의 방향을 중심으로 글쓴이의 태도에 대한 글쓴이의 선택권에 따른 태도귀인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

글쓴이의 선택권과 평가대상에 대한 태도 판단의 확신

글쓴이의 선택권에 따라 글에 나타난 태도와 글쓴이의 태도에 대한 확신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2(글쓴이의 선택권: 선택있음 vs. 선택없음) × 2(평가대상: 글에 나타난 태도 vs. 글쓴이의 태도) 혼합모형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상호작용이 발견되지 않았다, $F(1, 96) = 2.12, p = .149, \eta_p^2 = .022$. 다만 판단의 확신에 대한 평가대상의 주효과는 유의미했다, $F(1, 96) = 14.22, p < .001, \eta_p^2 = .129$. 즉, 글쓴이의 태도에 대한 확신은 선택있음 조건($M = 6.16, SD = 1.00$)보다 선택없음 조건($M = 5.46, SD = 1.13$)에서 유의하게 낮았다, $F(1,$

는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순효과 분석결과, 글이 찬성인 경우 선택있음 조건과 선택없음 조건의 태도귀인 차이는 유의하였으며, 선택있음 조건($M = 6.28, SD = 0.89$)에서 선택없음 조건($M = 5.32, SD = 1.03$)에 비해 참여자들은 글쓴이가 주제에 보다 찬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F(1, 94) = 6.96, p = .010, \eta_p^2 = .069$. 글이 반대일 때 역시 참여자들은 선택있음 조건($M = 2.28, SD = 1.36$)에서 선택없음 조건($M = 3.00, SD = 1.73$)에 비해 글쓴이가 보다 주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경계선적으로 유의하였다, $F(1, 94) = 3.75, p = .056, \eta_p^2 = .0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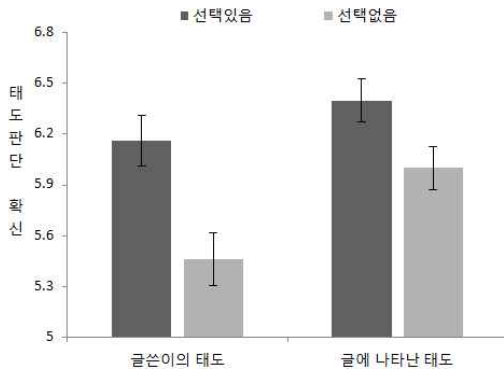


그림 4. 글쓴이의 선택권과 평가대상에 따른 태도 판단의 확신

96) = 10.66, $p = .002$, $\eta_p^2 = .100$. 이는 글쓴이의 태도에 대한 판단의 확신이 선택없음 조건에서 더 낮게 나타날 거라는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을 지지한다. 다만 글에 나타난 태도에 대한 확신 역시 선택있음 조건($M = 6.40$, $SD = 0.70$)보다 선택없음 조건($M = 6.00$, $SD = 1.03$)에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F(1, 96) = 5.08$, $p = .026$, $\eta_p^2 = .050$. 이는 글에 나타난 태도에 대한 판단의 확신은 평가대상에 따른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두 번째 가설과 배치되는 결과이다.

논 의

연구 2에서는 글쓴이의 실제 태도의 판단에 대한 참여자의 확신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태도귀인 패러다임에서 주어진 정보와 응답 선택지의 맥락을 고려할 때 선택없음 조건의 참여자들은 정확한 판단에 필요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글쓴이의 실제 태도를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있다(Funder, 1987; Miller et al., 1984). 적절한 정보에 기반을 두지 않은 판단은 그 판단에 대한 확신을 떨어뜨릴 개연성이 높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저자들은 이러한 방법론적 오류가 선택없음 조건에서 참

여자들의 낮은 판단의 확신을 야기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특히 기본적 귀인오류와 대응편향이 태도 판단에 대한 확신을 전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Jones & Davis, 1965), 태도 판단에 대한 낮은 확신은 이 두 현상에 대한 이론적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일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 2는 태도귀인 패러다임을 약간 변형하여 참여자들에게 글에 나타난 태도와 글쓴이의 실제 태도에 대해 판단하게 하였으며 각각의 판단에 대한 확신의 수준을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첫 번째 가설대로 참여자들은 글쓴이의 선택권에 관계없이 글에 나타난 태도를 글의 방향에 보다 일치하는 방향으로 판단하였다. 즉 글의 방향이 찬성이면 글에 나타난 태도 보다 찬성하는 것으로 글의 방향이 반대면 글에 나타난 태도 역시 보다 반대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글쓴이의 실제 태도에 대한 판단 역시 선택있음 조건에 비해 보다 중립적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그 경향성은 유사하였다. 즉 글의 방향이 찬성이면 글쓴이 역시 주제에 더욱 찬성하는 것으로, 반대면 글쓴이 역시 주제에 더욱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첫 번째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이나 선택없음 조건에서의 개인성향귀인이 저자들의 예측보다 다소 강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기본적 귀인오류와 대응편향을 밝힌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우선 두 번째 가설대로 글에 나타난 태도보다 글쓴이의 태도를 판단할 때 참여자들의 확신은 낮았고, 특히 선택없음 조건에서 참여자들의 확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태도귀인 패러다임의 방법론적 오류가 글쓴이의 실제 태도에 대한 참여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는 본 연구의 주장을 지지한다. 특히 앞서 논의했듯 기본적 귀인오류와 대응편향이 판단에 대한 참여자의 확신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Jones & Davis, 1965), 이러한 결과는 이 두 현상의 이론적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결과일 수 있다. 한편 가설과 달리 글에 나타난 태도를 판단할 때도 선택있음과 없음의 조건 간 태도 판단에 대한 확신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선택있음 조건에 비해 선택없음 조건에서 태도 판단의 확신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종합논의

본 연구는 기본적 귀인오류와 대응편향의 검증에 사용되어 온 대표적인 연구 패러다임인 태도귀인 패러다임의 방법론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태도귀인 패러다임에서 선택없음 조건의 경우 참여자에게 주어진 정보, 즉 글쓴이가 글을 지시받아 썼다는 정보와 글의 방향만으로는 주제에 대한 글쓴이의 실제 태도를 판단하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선행연구는 찬성-반대의 리커트 척도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참여자들에게 이런 판단을 요구하였다. 태도귀인 패러다임의 이러한 방법론적인 측면에 대한 비판은 이미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Devine, 1989; Funder, 1987; Miller et al., 1984; Schneider & Miller, 1975). 하지만 이를 비판한 선행연구는 이러한 방법론적 측면이 어떤 변인과 맞물려 개인성향귀인으로 이어지는지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는 태도귀인 패러다임의 방법론적 오류로 인해 기본적 귀인오류와 대응편향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이 각 현상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앞서 제기한 방법론적 오류가 참여자들의 태도 판단에 대한 편향된 응답과 낮은 확신이라는 두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고 각각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연구 1과 2 모두 태도귀인 패러다임을 재현하되, 연구 1에서는 참여자들에게 글쓴이의 실제 태도를 판단하기 전 이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았으며 이러한 인식에 따른 태

도 판단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구 2는 주제에 대해 글에 나타난 태도와 글쓴이의 실제 태도에 대한 판단을 구분해서 응답하게 하였으며, 각 판단에 대한 확신을 함께 측정하였다.

두 연구 모두 참여자들의 태도 판단이 부분적으로나마 태도귀인 패러다임의 방법론적 오류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연구 1의 경우 선택없음 조건에서 글쓴이의 정확한 태도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응답이 선택있음 조건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렇게 응답한 참여자들은 개인성향귀인을 보이지 않았다. 연구 2에서는 판단에 대한 확신이 글에 나타난 태도보다 글쓴이의 태도를 판단했을 때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특히 선택없음 조건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성향귀인을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가 참여자들의 요구특성에 기인한다는 Devine(1989), Funder(1987), Miller와 동료들(1984)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다만 연구 1과 2 모두에서 상황적 제약이 존재할 때도 개인성향귀인이 여전히 나타났다. 연구 1에서 선택없음 조건에서도 여전히 절반 이상(28명, 56.0%)의 참여자들이 글쓴이의 실제 태도를 정확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응답했으며 그렇게 인식한 참여자들은 개인성향귀인을 보였다. 또한 선행연구와 동일한 분석을 실시했을 때 개인성향귀인이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선택없음 조건에서 글쓴이의 실제 태도를 판단할 때 태도 판단의 양상이 가장 중립적으로 나타났으나 이 경우에서조차 여전히 글의 방향이 글쓴이의 실제 태도의 판단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본적 귀인오류와 대응편향을 지지하는 근거라 볼 수 있다.

예상대로 연구 1에서 글쓴이의 실제 태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응답이 선택있음과 없음 조건에서 다르게 나타났지만 모든 참여자가 가설의 방향대로 응답한 것은 아니었다. 선택없음 조건의 경우 절반이 넘는 참여자(28명, 56.0%)가 정확한 태도판단이 가능하다고 응답했으며 선택있음 조건에서도 정확한 태도판

단이 가능하지 않다고 응답한 참여자(3명, 6.3%)가 존재했다. 앞서 논의했듯, 제시된 정보만으로 정확한 태도판단을 하기 힘든 선택없음 조건에서도 정확한 태도판단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참여자의 수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난 결과는 개인 성향귀인을 선호하는 인간의 경향성을 의미할 수 있으며, 따라서 기본적 귀인오류와 대응편향을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Funder(1987)와 Miller와 동료들(1984)의 주장처럼 참여자들이 연구자의 의도를 벗어나는 단서에 초점을 맞추어 글쓴이의 실제 태도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주어진 정보로 정확한 태도판단이 가능한 선택있음 조건에서도 글쓴이의 실제 태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고 응답한 참여자가 존재했으며, 이는 글쓴이의 실제 태도의 판단에 대한 인식에 태도귀인 패러다임에서 제공한 정보 이외에 다른 요인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후속연구에서는 글쓴이의 정확한 태도 판단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한 인식과 함께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도 물어봄으로써 글쓴이의 선택권 외에도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구 2와 관련하여, 글에 나타난 태도에 대한 판단의 확신이 선택없음 조건에서 낮게 나타난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글에 나타난 태도는 상황적 제약과 관련이 없으며 따라서 글에 나타난 태도에 대한 판단의 확신은 글쓴이의 선택권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 따라서 이는 의외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상황적 제약 여부를 성공적으로 조작하기 위해 '글쓴이의 지시문'에 주의를 기울여 읽을 것을 당부한 연구절차에서 기인했을 수 있다. 참여자들은 실험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의미 있는 정보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으며(Funder, 1987), 따라서 실험자가 특히 주의를 기울여 읽을 것을 당부한 지시문의 내용(글쓴이의 선택권)이 본 연구에서 중요한 정보일 것이

라고 여겼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글에 나타난 태도를 판단하는 과제를 수행할 때 중요한 정보라 여겼던 글쓴이의 선택권에 관한 정보가 막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사실에 참여자들이 다소 혼란을 느꼈을 수 있다. 판단대상에 대한 정보의 통합성(대상과 관련된 정보의 연결성과 일관성)이 판단의 확신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밝힌 Gill, Swann과 Silvera(1998)의 연구는 이러한 가능성을 지지한다. 즉, 참여자들은 중요한 정보(글쓴이의 선택권)가 과제수행에 아무런 필요가 없는 상황(글에 나타난 태도에 대한 판단)을 대상에 대한 정보의 통합성이 결여된 것으로 받아들였을 수 있으며, 이러한 통합성의 결여가 상황적 제약이 존재하는 선택없음 조건에서 보다 현저하게 지각되었을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연구의 안내절차를 보다 정교하게 보완한 뒤 판단의 확신에 대해서 측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태도귀인 패러다임의 방법론적 오류로 인해 태도 판단에 대한 편향된 응답과 판단에 대한 낮은 확신이라는 두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가능성을 밝히는 것으로 태도귀인 패러다임의 재현을 통해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다만 본 연구의 태도귀인 패러다임의 연구절차와 측정방식이 선행연구의 그것과 차이가 존재하며, 따라서 선행연구를 최대한 유사하게 재현하지 않았다는 비판으로부터 본 연구는 자유롭지 못하다. 예컨대 연구 1에서는 태도 판단 과제를 수행하기 이전 정확한 태도 판단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였고 연구 2에서는 글에 나타난 태도와 글쓴이의 태도를 구분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이러한 연구절차는 각각 글쓴이의 실제 태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과(연구 1) 글에 나타난 태도와 글쓴이의 태도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연구 2) 암시함으로써 원래의 태도귀인 패러다임에 비해 상황 요인의 영향력이 보다 강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비해 태도 판단을

직접적인 방식으로 측정하였으며 단일 문항을 사용하였다. 실제로 다수의 선행연구는 태도귀인을 측정할 때 글의 주제에 관한 제시문(예 ‘공산국가인 쿠바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으며, 어떤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쿠바정권은 파괴되어야 한다’)을 제시하고 ‘본인이 글쓴이라면 제시문에 얼마나 동의할 것 같은지’에 응답하게 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사용한 반면, 본 연구는 태도 판단에 ‘주제에 대해 글쓴이가 얼마나 동의할 것 같은지’에 대해 응답하게 하였다. 이러한 측정방식의 한계로 인해 참여자가 본 연구의 진짜 의도를 보다 쉽게 알아차렸을 가능성이 있으며 단일문항의 사용으로 측정의 안정성에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후속연구는 선행 연구를 최대한 가깝게 재현하여야 할 것이며 측정문항과 관련된 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또다른 한계로 두 연구(연구 1: 24명, 연구 2: 16명) 모두 꽤나 많은 수의 참여자들이 주의집중 문항에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높은 탈락률은 연구가 진행되었던 연구 환경의 문제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 연구 1은 연구 참여 시간과 과정이 다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 즉, 참여자들은 연구가 진행되는 시간 중 실험실에 자유롭게 방문하여 연구에 관한 간단한 안내를 받은 이후 연구에 참여하였고 본인의 과제를 종료하면 바로 자리를 뜰 수 있었다. 연구 2의 경우, 실험자에 의해 연구의 전체적인 과정이 통제되긴 하였지만 1명의 대학원생이 대형 컴퓨터실에서 다수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기에 참여자들이 다소 부주의하게 과제를 수행했을 수 있다. 후속연구는 연구 환경에 대한 통제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본적 귀인오류와 대응편향을 서로 다른 현상으로 이해하는 최근의 추세를 고려할 때, 태도 판단에 대한 편향된 응답과 낮은 판단의 확신이라는 본 연구의 두 가지 쟁점은 각각의 현

상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함의를 지닐 수 있다. 우선 기본적 귀인오류는 원인에 대한 고려를 통해 개인성향귀인을 하는 것으로 이러한 판단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상황의 영향력에 대한 과소 추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개인성향귀인이 상황의 영향력에 대한 과소추정이 때문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나마 연구방법론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 1의 결과는 기본적 귀인오류의 타당성에 조금이나마 의문을 제기하는 결과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상황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의 여부에 관계없이 행동의 특성을 개인성향으로 대응하여 추론하는 대응편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기본적 귀인오류와 대응편향이 판단에 대한 확신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Jones & Davis, 1965), 선택없음 조건에서 글쓴이의 태도를 판단할 때 낮은 태도 판단의 확신을 보고한 연구 2의 결과는 기본적 귀인오류와 대응편향 모두의 이론적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밝혔듯 본 연구는 기본적 귀인오류와 대응편향을 지지하는 여러 정황들도 함께 보여주었다. 예컨대 연구 1의 경우 선행연구와 동일한 분석을 실시했을 경우 상황적 제약이 존재할 때도 개인성향귀인이 나타났다. 또한 선택없음 조건에서 여전히 과반 이상의 참여자들이 정확한 태도 판단이 가능하다고 응답했으며, 이러한 참여자들은 개인성향귀인을 보였다. 나아가 연구 2에서 선택없음 조건의 참여자들이 글쓴이의 실제 태도를 판단했을 때도 개인성향귀인이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한 태도귀인 패러다임의 일부 절차가 원래의 절차에 비해 상황요인의 영향력을 강조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기본적 귀인오류와 대응편향의 탄탄함을 지지하는 방향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기본적 귀인오류와 대응편향의 타당성에 대해 선불리 논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기본적 귀인오류와 대응편향을 검증해 온 대표적인 연구방법인 태도귀인 패러다임이 부분적으로나마

참여자의 태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태도귀인 패러다임이 가지는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영철 (2012). 국내기업과 외국계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소비자 집단의 인식 비교 분석: 국내 대기업 경영자들에 대한 시사점. *전문경영인연구*, 15(1), 25-47.
- 박순진 (2012). 범죄발생 추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과장된 인식과 자기 편향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3(3), 233-265.
- 박재진 (2011). 제품이 정말 좋아서일까? 모델로 때문일까? 광고모델이 제품에 대해 가지는 실제태도를 유추하는데 있어 소비자들이 가지는 기본적 귀인오류 현상 검증. *광고학 연구*, 22(4), 115-136.
- 박재진 (2012). 기본적 귀인오류현상에 대한 시간적 거리감의 조절 효과: 유명인의 제품 보증 차원에서의 검증. *한국언론학보* 56(4), 293-310.
- 성유리, 김종한, Meyersburg. C. A., 박광배 (2013). 일반인의 정당방위 판단에 대한 범문화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7(2), 69-83.
- Ajzen, I., Dalto, C. A., & Blyth, D. P. (1979). Consistency and bias in the attribution of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10), 1871-1876.
- Allison, S. T., Mackie, D. M., Muller, M. M., & Worth, L. T. (1993). Sequential correspondence biases and perceptions of change: The Castro studies revisited.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9(2), 151-157.
- Asch, S. E. (1951). Effects of group pressure upon the modification and distortion of judgment. In H. Guetzkow (ed.) *Groups, leadership and men: Research in human relations* (pp. 177-190). Pittsburgh, PA: Carnegie Press.
- Chang, C. Y., Crethar, H. C., Ratts, M. J., & Editors, G. (2010). Social justice: A national imperative for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50(2), 82-87.
- Choi, I., & Nisbett, R. E. (1998). Situational salience and cultural differences in the correspondence bias and actor-observer bia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9), 949-960.
- Clary, E. G., & Tesser, A. (1983). Reactions to unexpected events: The naive scientist and interpretive activ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9(4), 609-620.
- Devine, P. G. (1989). Overattribution effect: The role of confidence and attributional complexity.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2(2), 149-158.
- Dripps, D. A. (2003). Fundamental retribution error: Criminal justice and the social psychology of blame. *Vanderbilt Law Review*, 56(5), 1383-1438.
- Erickson, D. J., & Krull, D. S. (1999). Distinguishing judgments about what from judgments about why: Effects of behavior extremity on correspondent inferences and causal attributions.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21(1), 1-11.
- Funder, D. C. (1987). Errors and mistakes: Evaluating the accuracy of social judgment. *Psychological Bulletin*, 101(1), 75-90.
- Gawronski, B. (2003). Implicational schemata and the correspondence bias: On the diagnostic value of situationally constrained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6), 1154-1171.
- Gawronski, B. (2004). Theory-based bias correction in dispositional inference: The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 is dead, long live the

- correspondence bias.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15(1), 183-217.
- Gilbert, D. T., & Malone, P. S. (1995). The correspondence bias. *Psychological Bulletin*, 117(1), 21-38.
- Gill, M. J., Swann Jr., W. B., & Silvera, D. H. (1998). On the genesis of conf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5), 1101-1114.
- Hamilton, D. L. (1988). Causal attribution viewed from an information-processing perspective. In D. Bar-Tal & A. W. Kruglanski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knowledge* (pp. 359-385).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milton, D. L. (1998). Dispositional and attributional inferences in person perception. In J. M. Darley & J. Cooper (eds.), *Attribution and social interaction* (pp. 99-114).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astie, R. (1984). Causes and effects of causal attribu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1), 44-56.
- Hilton, D. J., Smith, R. H., & Kim, S. H. (1995). Processes of causal explanation and dispositional attribu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3), 377-387.
- Howard, J. A. (1984). Societal influences on attribution: Blaming some victims more than 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3), 494-505.
- Jones, E. E. (1979). The rocky road from acts to dispositions. *American Psychologist*, 34(2), 107-117.
- Jones, E. E., & Davis, K. E. (1965). From acts to dispositions the attribution process in person perception. I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 pp. 219-266). Academic Press.
- Jones, E. E., & Harris, V. A. (1967). The attribution of attitud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1), 1-24.
- Jones, E. E., Riggs, J. M., & Quattrone, G. A. (1979). Observer bias in the attitude attribution paradigm: Effect of time and information ord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7), 1230-1238.
- Krull, D. S. (2001). On partitioning the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 Dispositionalism and the correspondence bias. In G. B. Moskowitz (Ed.), *Cognitive social psychology: The Princeton symposium on the legacy and future of social cognition* (pp. 211-227). Mahwah, NJ, U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Lane, R. E. (2000). Moral blame and causal explanation. *Journal of Applied Philosophy*, 17(1), 45-58.
- Macrae, C. N., & Shepherd, J. W. (1991). Categorical effects on attributional inferences: A response time analysi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0(3), 235-245.
- Milgram, S. (1963). Behavioral study of obedienc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7(4), 371-378.
- Miller, A. G., & Rorer, L. G. (1982). Toward an understanding of the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 Essay diagnosticity in the attitude attribution paradigm.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6(1), 41-59.
- Miller, A. G., Schmidt, D., Meyer, C., & Colella, A. (1984). The perceived value of constrained behavior: Pressures toward biased inference in the attitude attribution paradigm.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7(2), 160-171.
- Nier, J. A., Bajaj, P., McLean, M. C., & Schwartz, E. (2013). Group status, perceptions of agency, and the correspondence bias: Attributional processes in the formation of stereotypes about high and low status groups. *Group Processes and Intergroup Relations*, 16(4), 476-487.

- O'Sullivan, M. (2003). The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 in detecting deception: The boy-who-cried-wolf effec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10), 1316-1327.
- Pettigrew, T. F. (1979). The ultimate attribution error: Extending Allport's cognitive analysis of prejudi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5(4), 461-476.
- Quattrone, G. A. (1982). Behavioral consequences of attributional bias. *Social Cognition*, 1(4), 358-378.
- Reeder, G. D., Fletcher, G. J., & Furman, K. (1989). The role of observers' expectations in attitude attribu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5(2), 168-188.
- Ross, L. (1977). The intuitive psychologist and his shortcomings: Distortions in the attribution proces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0, 173-220.
- Schneider, D. J., & Miller, R. S. (1975). The effects of enthusiasm and quality of arguments on attitude attribution. *Journal of Personality*, 43(4), 693-708.
- Smith, E. R., & Miller, F. D. (1983). Mediation among attributional inferences and comprehension processes: Initial findings and a general meth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3), 492-505.
- Tal-Or, N., & Papirman, Y. (2007). The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 in attributing fictional figures' characteristics to the actors. *Media Psychology*, 9(2), 331-345.
- Taslitz, A. E. (2006). Wrongly accused: Is race a factor in convicting the innocent. *Ohio State Journal of Criminal Law*, 4(1), 121-133.

1 차원고접수 : 2018. 07. 13.

수정원고접수 : 2018. 10. 17.

최종게재결정 : 2018. 11. 19.

**Methodological Errors in Attitude Attribution Paradigm and
Their Possible Consequences in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 and Correspondence Bias:
Biased Response and Reduced Confidence in Attitude Judgments**

Taeik Kim

Sun W. Park

Korea University

The present research explored the possibility of methodological errors in attitude attribution paradigm and its two possible consequences in examining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 and correspondence bias. It is suggested that participants in the no-choice condition made attitude attributions with normatively irrelevant information due to the restriction of response options, which may have caused participants' more extreme dispositional attribution as well as the reduced confidence in the attribution. To examine the proposed possibility, two studies were conducted among American college students ($N = 236$) replicating the attitude attribution paradigm with some adjustments. In the two studies, participants were informed about whether the author had the freedom to choose the direction of an essay (choice vs. no-choice) and read an essay in favor or against the effectiveness of face-to-face communication (pro vs. anti). In study 1, participants answered whether they could correctly make an accurate attribution before making the attribution. In study 2, participants judged the essay's and the author's attitude separately as well as rated their confidence regarding these judgments. The findings supported both the presence of the proposed problems in the attitude attribution paradigm and the overattribution effect. In study 1, more participants in the no-choice condition than in the choice condition answered that an accurate attitude attribution is impossible and such responders did not attribute attitude in the essay to the author. However, more than half of participants still answered that an accurate attribution is possible and such responders showed dispositional attribution. Also, although participants expressed less confidence when situational constraints existed, they still made dispositional attribution.

Key words :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 correspondence bias, attitude attribution paradigm, a methodological error, biased response for attitude attribution, confidence for attitude attribution

부록. 글쓴이의 선택권에 관한 지시문과 글의 원문

조건		글쓴이가 보았다고 참여자에게 제시된 지시문
글쓴이 선택권	선택 있음	Please write a short essay either in favor of or opposed to the idea that face-to-face communication is better than other types of communication, such as email or phone calls. Write an essay of 250 words. Below is the essay that the author wrote.
	선택 없음	Please write a short essay in favor of (opposed to) the idea that face-to-face communication is better than other types of communication, such as email or phone calls, regardless of your actual attitude towards the idea. Write an essay of 250 words.
본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글)		
글의 방향	찬 성	<p>Since the beginning of time, the most important method of communication has been face-to-face communication. In fact, face-to-face communication was the only method available for a long time. Although there are new communication tools available these days, such as phone calls or email, nothing has been able to completely replace the face-to-face method, and the face-to-face method still remains as the best one. Let me present a couple of reasons for it. First, in face-to-face communication, people can get direct response from the other party. When we talk with our friends, we can get feedback immediately from their verbal responses, body language and facial expressions. Based on these responses, we can know what the next step to take is, such as whether to carry on the conversation, change the direction, or finish the conversation if necessary. Words and body languages sometimes convey different messages. So, although you can hear words from a telephone conversation from your friends, there are occasions in which you are not sure if your friends really mean what they are saying. Second, it is very hard to convey emotions with methods other than the face-to-face method. When a person is showing their love for someone, they must do it face to face so that the other person can see how much they mean what they say. Also, when it comes to expressing sympathy for someone, using any other types of communication is just not enough. Calling or emailing people to express sympathy might give an impression that you do not have time or care enough to go over and say it in person.</p>
	반 대	<p>With the rapid improvement of high technology, various communication tools other than face-to-face communication have become an important part of our daily life. Although face-to-face communication still remains an important method for communication, I would like to argue that these new tools, such as phone calls and email, are becoming more valuable methods than the traditional one as time goes by. Let me present a couple of reasons for it. First, communication with telephone or email is much more convenient. There is no need to make an appointment or physically move to other places to talk with friends. All you need to do is just to send an email or text message. Then, your friends will reply to you right away. Wherever you are and whenever it is, this kind of communication is available. Also, since you can do other things while you are waiting for a reply, these methods can save you more time. Even more, you can actually do some other things simultaneously while communicating with your friends. Second, by using email or phone calls you can avoid direct confrontation or potential embarrassment. Sometimes, there are things that are difficult to say when you have to sit down with someone else. Imagine you have to turn down another person's request. Turning it down in front of the person will make you very uncomfortable; however, doing it by email will not be as difficult.</p>

※ 연구 2에 사용된 지시문의 경우 다른 부분은 위에 제시된 지시문과 동일하며 'write an essay of 250 words.'의 문장 앞에 'what is important is your writing skill, not your attitude.'라는 문장이 추가되었다.